

제 159 호

대림 제 3주일

1975. 12. 14.

숲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칼 문□



미친(?) 사람들

박창신 신부

대림3주를 맞아 교회전례는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 장미색 제의를 사용합니다. 크리스찬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순창군 삼치면 시산국민학교 근처에 영광정(迎狂亭)이라는 낚시터 정자가 있습니다. 유래야 어떻든, 낚시에 미친사람을 환영하여 즐겁게 노는 곳일 것입니다. 미친것도 여러가지 있겠지만, 정신의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라 하겠습니다.

어느일에 몰두한 사람을 그 일에 미친 사람이라 합니다. 낚시에, 사업에, 연구에 미친사람은 정신의 비정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쟁이"라는 좋은 칭호도 있습니다. 낚시에 미친 사람은 누가 뭐라 하던간에 낚시에 온갖 정성을 다 바치며 그안에서 회멸, 또한 더 많은 낚시의 묘미를 알 뿐 아니라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며 낚시에서 모든 인생을 얻고 있습니다. '은혜 증만한 대림시기!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께 향하여 회두(미쳤)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업적에 매혹되어 기쁨을 얻은 영광자(迎狂者)들이 되어 생활중심을 그리스도로 하고 있으며 인생을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대로 (61. 1) 야훼의 신이 그 위에 내리시어 기름 바르셨으며, 가련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수어진 자들을 싸매어 주고, 포로들에게 석방을, 묶여 있는 자들에게 풀려나감을 선포하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일 때문에 무참히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그분을 통하여 죽음과 죄에서 해방되어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인간 최대의 불행이 있다면, 영원을 사모하는 것에 대한 불성취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자로 안겨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야훼의 가난한 이들은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이들은 하느님의 언약을 꼭 믿고, 하느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이들은 야훼께 향한(미친)사람들이었고, 특히 오늘 복음의 세례자 요한과 마르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구약의 처지와 달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어느분야에 정상적으로 미쳐버린 자가 있다면 그 불야는 굉장한 발전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면 하느님의 교회인 이 세상은 더욱더 발전하여 이 세상의 복음화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회개와 기다림과 기쁨의 시기, 은혜 증만한 이 대림시기에 정말 회두의 기쁨을 안고 닥아오는 성탄절과 그리스도의 제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순창 천주교회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가톨릭기도서 P 217

(1) 개회식

□**입당송**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라.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이사야 61: 1-2a, 10-11)

주님안에서 크게 기뻐하라.

□**증계송**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 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함이며/나를 구하신 하느님께/내 마음 기뻐 날뛰나니/당신 중의 비침함을 돌보셨음으로다/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라. ◎

□**제2독서** (데살로니카 전서 5: 16-24, 성서 P 470)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너희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시기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의 성신이 내 위에 계시며/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도다. 알렐루야.

□**복음** (요한 1: 6-8, 19-28 성서 P 202)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을 너희는 모른다.

□신자들의 기도

1. 언제나/회개하고 통회하여/당신 품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여! 이 대림절 동안/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녀들로 하여금/하느님과 또한 이웃과 화해하여/참된 신앙인이 되므로 이 나라와 이 사회의 어둠 속에서 진리와/정의와/사랑의 빛을 밝히시는 교회가 되도록 은총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인자와 사랑으로 당신 자녀를 이끄시는 천주여! 날로 복잡해 가는 사회안에서 당신백성 지도자들에게 권력을 휘두름이 아니라, 올바르게 권력을 행사하는 참 지혜의 사랑을 주소서◎

3. 추위속에 오늘도 전방과 후방에서 수고하시는 군중신부님, 또한 국군 장병들에게 주여! 나의 힘으로 인하여 모든이들에게 편히 거할 수 있게 한다는 자부심으로 웃으며 군복부에 입할수 있게 하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따뜻한 정성으로 보답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소심한 자들아, 우리 천주 몸소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니, 용기를 내어 무서워 하지 말라.

숲정이 산책



살려면 줄을 잡아라



내일의 기대와 소망을 위해

이 태 주 신부

찬서리로 일어 붙은 매지에서 변하는 계절의 감각을 느끼는가 했더니, 좋은 곳든 모든 사람에게 아쉬움을 남긴 채 영영 가 버린 197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읍니다. 비록 퇴색해 버린 아포리즘이지만 아직도 썩으면 맛이 나는 빠스칼의 광세가 말하는 "생각하는 갈매"들은 저마다의 가슴에 가지 가지 흔적을 남겨 두고 저무는 한해의 감상을 느끼고 있기에, 다시 오지 않을 날들을 뒤 돌아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부조리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과, 없어서 좋을 것은 있고, 있어야 할 것이 없는 현실이기에, 내린적 풍요 즉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할 것을 버리는 자세는 한해를 보내는 이 마당에서 더욱더 강하게 우리의 양심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나온 한해 동안 수많은 날과 시간들 속에서 각박한 인생 살기로 발버둥쳤던 우리 자신을 생각하니, 서양의 어느 참회록 속에 나오는 우화 한토막이 떠오릅니다.

"사나운 짐승의 추격을 당하여 이를 피하는 나그네는 더 달릴 기력을 잃고 당황하다가 한 웅덩이를 발견하여 우선 다급한대로 그곳을 피난처로 삼아 기어듭니다. 들어가다 보니 저 밑바닥에서 꿈틀거리는 뱀을 보고서 난처한 기로에서 망설이다가 한 나무를 발견하고 그것을 움켜 잡았읍니다. 정신을 차려 주위를 살핀세라 나무 밑 등걸을 굶아 먹는 쥐를 보고 아찔해 합니다.

그때 무엇인지 꼬 끝을 적시며 훌러 내리는 것을 느꼈읍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혀를 내어 맛을 보니 그것은 벌집에서 흘러내리는 꿀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당장 처해 있는 위험을 잊은듯 꿀맛에 젖어있었다"는 우화입니다. 이 우화는 '오늘의 인생일대(人生一代)'의 전례, 즉 현대인의 삶의 정경술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충족감 또는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해를 보내는 문턱에서 우리의 계획과 희망이 산산히 부서져 이루지 못했던 일, 또한 이웃과 수많은 사람들과 서로 맺고 풀리지 못했던 일들을 반성해 보는것은, 앞으로 나가는 새로운 앞날을 계획하고 진지한마음 가짐을 가지는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해 주는 충족감까지 사명감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 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쳐다보며, 오는 내일의 기대와 소망안에 지난 일의 반성으로 내일을 아름답게 그려 보기로 합시다 <함열천주교회 보좌신부>

□레지오 마리에□

단원에게 보내는 글

존경하는 레지오 마리에 단원 여러분! 그리고 레지오 마리에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성년의 해를 보내고 교회 달력이 새로 시작하는 "대림절"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레지오 마리에 단원은 회개하고 속죄하는 뜻에서 불우하고 가난한 이웃사랑과 억압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일 것입니다.

레지오 마리에에서 그동안 엄격히 규제하여 온 물질적인 활동은 새로운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바른 손이 한 짓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단원 여러분의 힘에 알맞게 결속한 마음으로 물질적인 활동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성모님께서 즐거워 하실 것입니다"

본 꼬미시움 간부회에서 결의한 대망의 76년 새해에 우리 레지오 마리에 계획 몇가지를 단원 여러분에게 제시하오니 꼭 실천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레지오 마리에 목적인 개인성화에 더 한층 노력 하십시오.
2. 본당 사도회 사업에 희생과 사랑의 정신으로 솔선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십시오.
3. 신자들간에 가까이 사는 이웃 형제에게 친절한 인사를 나누어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단원이 되어 주십시오.
4. 우리 레지오 마리에 단원은 성모님을 본받아 모든 이에게 모범을 보여 주는 신자가 되어 주십시오.

꼬미시움 직속 근심하는이의 위로 브레시디움에서는 영웅적인 활동으로 천주교도소 제조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영세를 받게 하여 제조자들에게 레지오 마리에 브레시디움을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틱뉴스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레지오 마리에 활동을 하고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곳 많은 제조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활동하여야 할 교도소 제조자 단원들은 엄격한 규율에 따라 우리와 같고 자유로이 활동할 수가 없어 교회서적을 통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원들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 모두가 뒷받침 해주어야 하겠읍니다.

뜻있는 여러 레지오 마리에 단원들께서 성탄의 선물로 교리서적 한권씩 보내주시기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성모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레지오 마리에 단원 여러분은 충실한 성모님의 군사가 되어 주시기 바라며, 단원 확장과 협조단원 돌보기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움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하느님의 축복 있으시기 기원합니다.

레지오 마리에 전주과며마의 꼬미시움 단장 한 형 수

삼성 T.V 대리점

삼성전주센타

T.V, 냉장고, 전기용품 일점

박영욱(누서아)

전주극장입구 전화 5898

외판사원모집

※강가루포 양말 전복 직매점※

주주네집

전주시 풍남동 은행나무 골목 6508

걱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종합전자

TV.냉장고는 종합전자로

광주직행요 2-3332

□ 양 지 쪽 □



한 해를 보내며

한 기 호(오한)

벽에 붙은 마지막 한장의 달력은 언제 내가 12장이 붙은 달력 이었느냐는 듯이 대꾸하며 유심히도 나를 노려보고 있다. 벌써 75년의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별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서산마루로 서서히 기울어 저 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해동안 우리의 사회 주변에서 일어났던 갖가지 일들에 대해 돌이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우리의 삶에 대한 한해의 결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75년의 한해는 유별나게도 인간 생명에 대한 사회 주변의 갖가지 경시적(輕視的)인 태도를 우리에게 던져 주었던 한 해였음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유괴사건, 살인마의 사건등 공공연히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인간 생명에 대한 처절한 참상들을 우리는 보아 왔다. 인간을 상품화 시키고 노예화 시키는, 어쩌면 그렇게도 쇠고기 값, 돼지 고기값 처럼 취급해 버리는, 물질 주의가 빚어낸 불협화음 이라고나 할까? 이러한 사회 주변의 악의 세력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 교인은 어떠한 양심을 지니고서, 얼마나 저항을 느끼고 의분을 느꼈던가? 생각하여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냥 하나의 사회 현상 처럼 여기지나 않았는가? 만약 그렇게 여겼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세상이 주는 패락 부귀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또는 너무나도 세상 일에만 매달린 나머지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창문을 닫아 버리고 나에게 가장 가까운, 구체적인 이웃에게 조차 관심을 가져주지 못하는 우리의 폐쇄된 마음으로 인해, 사회구조를 타고 도도히 밀려 오는 물질주의 사조에 쉽게 물들어 동화 되었기에 그런지도 모른다. 설령 이러한 악의 세력에 저항을 느끼고 의분을 금치 못했다 하더라도 “갈갈한 철쭉 같이 어두운 악의 세력 앞에 가장 미약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나에게 무슨 책임과 의무가 있단 말인가? 나야 주일 미사 쫓기지 않고 봉헌금 낼 때 제때 내고 착실하게 성당에 나타나고 하면 그만이지” “악을 일삼는 자들이 죽일놈이지” 이렇게 쉽게 한마디로 일축해 버릴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릇 인간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존재 양식이 있다. 인간뿐 아니라 자연계에 있는 생물, 광물에 이르기까지 각 사물은 사물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존재 양식이 있다. 집을 지켜 주고 가족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어야 할 개가 도둑이 나타나도 쫓지 않는다면 그 개는 보신탕 으로나 죽할까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초가 촛불로서 밝게 비춰 주는 구실을 못할진대 그것 역시 초라는 물건이 지니는 고유한 존재 양식이 어디에 있다고 볼 것인가? 무릇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로서 외교인들과는 다른 존재 양식을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진리 안에서 사는데, 그리스도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 하는데 있어 그 목적 하는 바를 추구 하지 못한다면 신앙인 으로서 지녀야 할 존재 양식을 벗어난 외교인들과 하등 구별 되어지는 점이 없다고 보겠다.

순교 선열들이 흘린 피의 결실로 한국의 교회는 100만 이라는 가톨릭 신자수를 헤아리고 있지만 100만이라는 신자 각각 하나하나가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에 항거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에 가장 구체적인 사랑을 심어주는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시대가 작박 하고 우리의 사회가 인정이 매달라 가고 아름다운 생활 모습들이 사라져 가고 혼탁 해 졌겠는가? 아무리 그리스도 교인들의 수가 미약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교인들의 고유한 생활양식을 영위해 나간다면 마치도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원심력에 의해 계속 번져 나가듯 우리의 사회는 보다 훈훈하게 번져 나가고 말 것이다. 악의 세력을 날카롭게 보는 안목을 지니고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안에 연대의식을 이룰 때 75년의 한해와 같은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는 서서히 자취를 감출 것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 맞이하게 될 그리스도를 모시려는 우리의 마음 자체도 우리의 생활양식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 주께서 다시 오실때 까지 기다리는 의의가 있을 것이고 얼마 남지 않은 이 한해를 뜻깊게 보내는 신앙인의 자세가 있다고 볼 것이다. (대전 신학대학 연구과1번)

요심이 (25) 김병오



■ 직원 모집 ■

전주 임원 신용조합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을 모집합니다.

- ① 응모 자격 (男)
 - 고졸이상 35세 미만 병역 필한자 또는 면제된자
- ② 구비서류
 - 이력서, 사진 각 1매
 - 주민등록 초본 1통
- ③ 접수기간
 - 1975. 12. 17 오후 5시까지
- ④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⑤ 접수처: 전주시 서노송동 601 가톨릭센터 내
 - 전주 임원 신용 협동 조합
 - 전화 ⑤ 3185

◎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

영진 약국

— 조제약 전문 —

김을태 (베드로)

☎ 육교옆 중앙 시장통
(전화 ⑤ 4577)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대지 사진관 (2층)

이상범 (필노리아노)
육교밑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⑤ 6544

* 신부화장, 드레스전문 *
(교우 특별 우대)

윤경미장원 정화미용학원

이리시 창인동 1가 (역전앞)
전화 4705
대표 최윤경 (유리안나)

제2 6지구 각 본당 소식

※ 공지 사항 ※

1. 국군 장병 위문금, 위문품 위문편지 보내기 운동. <접수> 12월10일까지, 전주교구청에 1975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국군 장병들을 위문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보내는 곳> 교구내 군중신부님들께 : 고경훈 신부, 성린호 신부, 서용복 신부, 이수현신부, 김병운신부
2. ※축군산 동물동 천주교 예수 평화상 축성식 주교님 집전하에 거행
3. 대학생 연합회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의 자리" : 1975년 12월 30일 오후 3시~9시. 전동성당 성심유치원에서 <일정> 반성회 및 신·구 입원 교제식, 기타 <회비> 200원
4. 남원 KBS 종교방송 : 12월14일 오후 4시20분~30분까지 <연사> 남원본당 김병엽 신부님
5. 제3지구 성가 경연대회 : 75년 12월21일 창인동 천주교회에서
6. 제 9차 남성 푸르실로 : 76년 1월 1-4일, 가톨릭센터

(중앙)

전화 ③3651 ③3874

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신부 김상
사도 회장 김동승

1. 합동 교백성사 집행 : 17일 오후 4시30분부터
 2. 푸리아 윌레회 : 오늘 오후 4시
 3. 성모회 윌레회 : 다음 주
 4. 영세식 : 12월 20일 오후 7시30분
 5. 형무소·35사단 위문금 특별 헌금 있음
 6. 주일학교 방학 : 12월 20일
- ◎금주 마당공사 회사금 * 김옥자씨 3,000원

(덕진)

전화 ③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판공 일정 : 22일 오후 7시~ (6개본당 신부 합동)
2. 사도회 상임 위원회 신용조합 윌레회 : 공식미사 후

(복자)

전화 ② 5238

주임 신부 김길호
사도 회장 조성호

1. 판공 성사 : 16일 저녁 7시부터. 성사표 15일까지 받아 준비하시기 바람. 성사표 교부시 교무금 친입 및 답입 바람.
2. <15일> 아침 6시 미사 <16일> 저녁 7시 <17~19일까지> 아침 6시
3. 복자 성우회 윌레회 : 공식미사 후

(서학동)

전화 ③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박장춘

1. 판공 일정 <16일> 마음리 공소 19일 오후 7시 6개 본당 신부님 합동 성사 : 본당
2. 상관 사도회, 애령회 : 오늘
3. 오늘 군인 위문품대를 위한 특별 헌금 있음
4. 상관 공소 판공성사, 교무금 미 신입자는 신입 바람
5. 성사표 찾아 가시기 바람

(전동)

전화 ②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한봉섭
사도 회장 양준모

1. 본당 판공성사 : 15일 (월) 오후 4시부터 <미사> 7시
2. 자모회, 장우회 윌레회 : 10시 미사 후
3. 성 가정회 : 오늘 오후 3시 <연사> 안 마리오
4. 성탄 전야 행사 <7시~> 어린이 미사 <8시~10시> 단체 가족 특기 및 노래. 크리스마스 캐롤 <11시> 가동행렬 <12시~> 성탄 전야 미사
5. 성가대 성가 연습 : 청년 합창단 <금> 저녁미사후 어머니 합창단 <토>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제1지구	고김부수신태인정	즐거운 선물교환 유장선 새 신부님께 주님은총빔니다	4,600원	제3지구	주현동 창인동 황등	판공 성사에 모두 다 임합니다	51,895원
		사우회 교리 교실 성모회 윌레회	19,675원			전자 오르간 구입	43,850원
제2지구	대운명중합	신용조합 1일 교육 실시	4,800원	제4지구	중노송등덕부서학동전	푸리아 윌레회	54,120원
		예비자 교리 적극참여 바람	2,920원			신용조합 윌레회	13,190원
제3지구	고금여삼	외곽 교우 초대의 밤	15,080원	제5·6지구	무장진남순일	사도회 상임 위원회	11,822원
		바다의별 푸리아 개정 공소 1일 피정	6,465원			성우회 윌레회	18,510원
		예비자 교리 특강	39,955원			상관 사도회, 애령회	14,320원
			23,515원			자모회, 장우회, 윌레회	61,000원
			13,585원			성탄절 사랑의 선물 보내기 운동	원원원
			17,390원			판공 성사에 모두다 임합니다	13,160원
			3,170원			성탄 행사에 모두다 참여 합니다	3,750원
			13,465원				